

# 북촌유거(큰사랑)

정면 7칸, 측면 3칸 건물로 2칸 방 2개, 1칸 방 2개, 4칸 대청, 3칸 누마루, 3칸 규모의 정자와 그 위에 같은 크기의 다락, 그리고 5칸의 퇴, 5쪽의 쪽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홀처마 팔작지붕이며 굴도리 5량으로 하였으며, 집 외부기둥은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 보이지 안쪽을 초각하고 장여 밑에 소로 받침을 두고 문은 띠살창호와 울거미널문을 혼용하였다. 가장 웃어른인 할아버지께서 거주하시던 사랑으로 간혹 외빈 접객용으로도 사용하였다. 누마루는 동쪽으로 하회의 주산인 화산, 북쪽으로는 부용대와 낙동강, 남쪽으로는 남산과 병산 등 하회마을의 '명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이다.



**북촌유거(큰사랑) 전면**  
Front view of the Bukchonnyugeo (large-sized men's quarters)  
北村幽居(大舍齋)の前面



**북촌유거 대청과 12쪽 목매도 병풍, 고가구 (관복장, 약장, 사방탁자, 문갑)가 놓여 있는 田자형 6칸 사랑방**  
The wood-floored hall of the Bukchonnyugeo (large-sized men's quarters); the 6 kan \* 田-shaped room fitted with a 12-panel folding screen, depicting an ink painting of a plum tree, and series of antique furniture (a wardrobe, a medicine cabinet, open shelving, and a chest of drawers)  
(\*Kan: a traditional measur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space between two columns)  
北村幽居の板の間と12枚墨梅図屏風、古い家具(官服箆笥、薬筆笥、四方卓子(飾り棚)、文箱)が置かれている。「田」字型の6間のサラパン(居間兼客間)

북촌유거의 방은 '전田'자형으로 되어 있다. 안채 역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방 하나를 4개로 나누어 자는 곳, 책 읽는 곳 등으로 구분하여 쓰도록 했다. 대청마루에 걸려 있는 액자 속 붉은 홍패는 조선시대 과거급제자에게 국왕이 내린 합격증으로 이 집의 근간을 세운, 집주인 류세호씨의 7대조 류이좌 선생이 정조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현판에 새겨진 '석호石湖'는 5대조인 류도성 선생의 호이며 큰사랑의 방과 대청 사이에는 들어열개문을 달아 건물 전체가 하나가 된다. 창밖 풍경까지 치자면 방에서 낙동강 건너 부용대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하회마을 북쪽의 부용대에서 바라보면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휘감아 돌면서 흐르고 있다. 북촌유거 뒤에 있는 3백여 년 된 소나무가 낙동강 강줄기의 흐름과 같은 형상으로 성장해서 그 멋을 더하고 있다. 북촌유거의 현판은 조선 철종 당시 명필인 해사 김성근 선생의 글씨로 북촌이 기품있게 기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7대 "학서" 선조 과거급제 홍패와 5대 "석호" 선조 경상도사 교지가 걸려있는 북촌유거 대청과 누마루**

The wood-floored hall of the Bukchonnyugeo (large-sized men's quarters) with a state examination certificate printed on red paper earned by the Hak-seo (the 7th generation) and a senior official appointment certificate for the Seok-ho (the 5th generation); the attached room 現オーナーから7代目にあたる「鶴樓・柳台佐」の科擧合格証書である紅牌と、5代目にあたる「石湖・柳道性」の慶尙道都事の任命書である教旨が掛けられている北村幽居の板の間と、ヌマル(高床の縁側)



**정조 어필이 쓰여 있는 시권과 垂자형 난간이 둘러있는 쪽마루**  
An exam paper with King Jeongjo's marking on it; the wooden veranda with a 垂-patterned balustrade  
朝鮮王・正祖が採点した試験用紙「試券」と、「垂」字型の欄干が付いた濡れ縁

화경당은 경계권을 가진 바깥주인이 기거하던 사랑으로, 화경당 편액은 학서 류이좌공의 당호로 가족과 친족간에 화목하고 임금과 어른을 공경하라는 뜻이며 충효와 쾌를 같이 하고 있다. 화경당 편액은 석봉 한호 선생의 글씨다.

수신와는 집안의 손자가 기거하던 작은 사랑이다. 방 오른쪽에는 안채로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 달려있다. 어린 마음에 보고 싶은 어머니 품으로 남들 모르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랑'의 문이었다. '수신와'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언제나 삼가면서 겸손하라는 뜻으로 '적선지가' 로서의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 당대 명필인 해사 김성근 선생의 글씨이다.

## 화경당(중간사랑) / 수신와(작은사랑)



**수신와 마루와 석란 병풍이 둘러 있는 작은 사랑방**  
The wood-floored hall and the room in the Susinwa (small-sized men's quarters) fitted with a folding screen depicting orchids growing on rocks  
須慎窩の板の間と石蘭屏風に囲まれた、小さなサラパン(居間兼客間)



**한옥에서 보기 드문 2층 구조의 안채 야경**  
A night view of the 2-storey Anchae (women's quarters), something rarely seen in traditional houses  
韓屋(韓国の伝統家屋)としては珍しい、2階建ての母屋の夜景

안채는 둘레 3.5자(약 1m), 높이 13자(약 4m)의 두리기둥과 둘레 6.5자(약 2m), 길이 23자(약 7m)의 굵고 긴 대들보를 얹어서 지었다. 한옥에서 보기 드문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하회마을 사가 중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로 대갓집의 위엄과 품격을 뽐내고 있다. 중앙에 마당을 두고 전체 평면이 '口'자형으로 부엌, 안방, 대청, 고방, 윗상방, 뒷마루, 아랫상방 등이 갖춰져 있다. 부엌은 대갓집답게 3칸 반의 큰 규모이며 그 위에 같은 크기의 다락을 두었다. 안주인이 기거하던 4칸 규모의 안방은 독특한 '田'자 구조이다. 앞줄 2개 방(아랫방, 윗방)은 일상 기거와 접객이 이루어졌으며 뒤줄 2개 방(골방, 찬방)은 옷가지와 안살림을 수장하던 곳이다. 2백여 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안채 곳곳에는 쓰임새 있는 살림 공간들이 알뜰히 마련되어 있다. 방만큼 너른 다락, 안채 기둥 사이와 방에는 시렁이 있어 이불이며 세간 등을 챙기도록 했다.

**독특한 구조의 田자형 4칸 겹방**  
A unique designed double rooms  
独特な構造の「田」字型の4間の区切られた部屋





→ 안채 뒷벽과 탕자나무(보호수) → 디딜방아 → 안채 → 화경당(중간사랑) → 수신와(작은사랑) → 곳간 → 솥들대문 → 가맛간 → 뒷간

{ 이용안내 }

- 북촌유거(큰사랑)** 독특한 구조의 '田'자형 6칸 곱방과 사랑 전체, 최대 8인 가능
- 화경당(중사랑)** 2칸 큰방과 1칸 마루, 최대 3인 가능
- 수신와(작은사랑)** 2칸 방과 1칸 마루, 최대 4인 가능
- 안채(윗상방)** 1칸 방, 최대 2인 가능
- 안채(아랫상방)** 1칸 방, 최대 2인 가능

※ 윗상방, 아랫상방 모두 6칸 안대청 사용 가능



**아름답게 되살린 한옥 체험**

전통 사대부가의 격식을 갖춘 방, 가구, 전통 술 이부자리 등을 몸소 경험할 수 있고 유기 노트로 제공되는 아침식사와 군불을 때어 난방하는 구들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210여년 고택에서 배우는 한옥의 진면목**

류이좌 선생의 8대손이자 현재 북촌댁을 지키고 있는 '한옥 박사' 류세호 주선과 72칸 북촌댁 한옥투어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비의 기상과 지조가 오롯하게 녹아있고  
210여 년의 역사와 삶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  
정통 한옥 체험을 통하여  
선조들의 정신과 맛을 느끼는 문화 공간



북촌댁

안채와 화경당을 중심으로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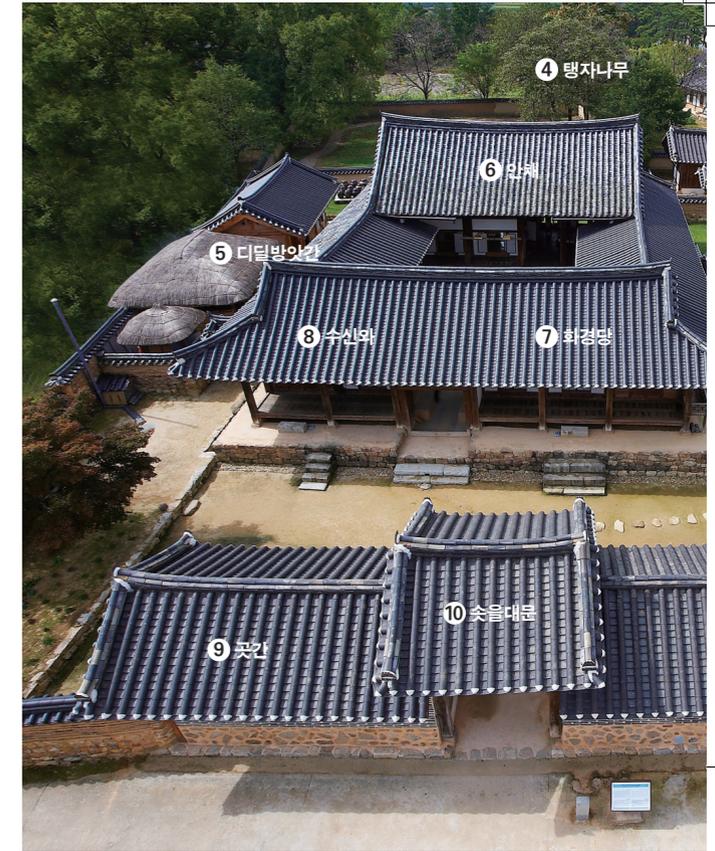
北村宅



선비의  
기품과  
학식이  
그윽한  
명품고택

검색창에 "북촌댁"을 치세요.

북촌댁  
北村宅



● 둘러 보시는 순서 하회소나무(보호수) → 북촌유거(큰사랑) → 사랑

하회마을의 북촌댁은 당호가 화경당和敬堂으로 210여년 동안 '적선지가積善之家'(좋은 일을 많이 한 집)로서 선대의 배품과 선비로서의 학식과 기품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류씨 집안의 고택입니다.

대대로 낮은 소작료로 소작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홍수해 때에는 사재를 털어 이웃을 도왔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를 걱정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었습니다. 대과급제와 퇴계→서애→학서로 이어지는 영남학맥을 이었고, 8대 조모 연안 이씨가 지은 규방가사 '쌍벽가'는 여성 최초의 규방가사로 유명합니다.

하회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북촌댁에서 한옥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